

<http://dx.doi.org/10.17703/JCCT.2024.10.5.407>

JCCT 2024-9-48

고령자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the elderly's preparation for old age

임안나*

Ahn Na, Lim*

요약 본 연구는 국민노후보장패널 9차 본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전국의 60세 이상의 고령자 1,92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15.1%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이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여성에 비해 남성의 노후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은 노후준비에 부적(-) 영향을 미쳐서 연령이 어릴수록 노후준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교육수준도 노후준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 전문대졸 이상의 졸업자보다 초졸, 중졸, 고졸 대상자는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따라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노후준비를 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생활만족도가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노후준비를 잘 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노후준비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식하였으나 본 연구를 통하여 생활만족도도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고령자, 노후준비, 생활만족도, 더미변수,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Abstract This study used data from the 9th main survey of the National Old Age Security Panel, the subjects were 1,923 elderly people aged 60 or older nationwide.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effect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n Preparing for Oldage, 15.1% of explanatory power was shown in Preparing for Oldage. First, it was found that there was more Preparing for Oldage among men than among women. Age had a negative effect on Preparing for Oldage, with many respondents saying that the younger they were, the more likely they were to Preparing for Oldage. Education level also had a significant effect on Preparing for Oldage, and more respondents said that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graduates were not doing Preparing for Oldage than those who graduated from vocational college or higher. Therefore, it was found that the lower the level of education, the less Preparing for Oldage was done. Next,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effect of life satisfaction on Preparing for Oldage, the higher the life satisfaction, the better the Preparing for Oldage was. In general, it was recognized that Preparing for Oldage would have an impact on life satisfaction, but through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life satisfaction had an impact on Preparing for Oldage.

Key words : elderly people, Preparing for Oldage, life satisfaction, dummy variable, KReIS

*정회원, 광운대학교 글로벌교육센터 부교수 (단독저자)
접수일: 2024년 6월 10일, 수정완료일: 2024년 7월 1일
게재확정일: 2024년 9월 5일

Received: June 10, 2024 / Revised: July 1, 2024

Accepted: September 5, 2024

*Corresponding Author: lan22@kw.ac.kr

Dept. of Global Education Center, KwangWoon Univdrsrity

I. 서 론

노인 인구의 증가는 세계 많은 나라에서 경험하는 중요한 사회변화 중 하나이다. UN의 2022년 세계인구 전망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세계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전체인구 중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22년 10%에서 2050년에는 16%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한국은 2050년에 노인인구가 35.9%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18년에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5년에는 20.3%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인구의 중위연령은 1960년 19.0세, 2024년 현재는 46.1세이고, 2072년에는 63.4세가 될 것이라 한다. 기대수명은 1970년 62.3세, 1990년 71.7세, 2010년 80.2세, 2024년 현재는 84.3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위연령과 기대수명의 증가는 저출산, 생활환경의 개선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것이다.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노년기가 점차 길어졌고, 노후준비에 대한 부담도 더욱 커지고 있다. 노후준비는 노년기에 건강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경제적 노후자산이 얼마나 준비되어있는지를 의미한다[2]. 핵가족화와 노인부양 의식 감소 등으로 인하여 가족의 전통적 기능인 가족돌봄이 약화된 지금은 더욱 그 부담이 큰 상태이다. 에릭슨의 심리사회발달 이론에 의하면 노년기는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고 자신의 삶이 의미있었음을 인식하는 자아통합의 단계로 노후준비는 자신의 인생 성공 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노후준비 부족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약해진 노년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초래하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시장소득 기준으로 2022년 57.1%로 나타나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노인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이유로 생계비 마련이 73.9%로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고령층의 경제활동인구는 가파르게 증가하여 2002년 390여만명에서 2023년에는 3배 정도 증가한 9천300여명에 이르고 있음을[1] 볼 때 노인들의 노후준비는 매우 부족한 실정임을 짐작할 수 있다. 노년기 빈곤의 원인은 은퇴로 인한 소득의 감소 및 중단과 여러 가지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노년기 빈곤은 장기화되는 특성을 갖고 있으

며 이는 노후준비 부족과도 관련이 크다. [3]은 노후준비에 대한 실천이 매우 부족하다고 하였으며, [4]의 연구에서는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35.8%에 불과하였다. [5]는 대상자의 55.2% 정도만이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였다. 국민연금연구원의 노후보장패널자료를 분석한 [6]은 노후준비 정도는 1998년 27.6%, 2002년 41.4%, 2009년 45.6%, 2015년 51.3%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다. [7][8]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심리적, 경제적 노후준비 중에서 경제적 노후준비 수준 평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처럼 고령자들의 절반 가까이 노후준비가 안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노인에 대한 소득, 복지 및 돌봄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노인들의 부족한 노후준비로 인하여 사회에서는 노인을 부담스러운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다. 실제로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에 대한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노년부양비를 살펴보면 1960년 5.3, 1990년 7.4, 2000년 10.1, 2020년 16.9, 2024년 현재는 14.6을 나타내고 있으며 2066년에는 100.8명이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1]. 노인 인구의 절반 정도가 노후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생산가능인구의 세금부담과 사회보장비(기초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사회적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후준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아보는 일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고령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성별을 들 수 있는데, [5][9]는 여성이 남성보다 세심하고 준비성이 많아서 노후준비를 잘 하고 있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노후준비를 잘 하는 고준비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8]. 그러나 [4]는 남성이 여성보다 노후준비를 하는 경향이 높다고 하였고, [7]도 가정으로서의 책임감과 사회적 책임감 때문에 남성의 노후준비 수준이 높다고 하여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연령이 많을수록 노후준비를 잘 한다는 연구[4][5][8][10]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11]은 나이가 어릴수록 노후준비를 잘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다음으로 교육수준은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6],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노후준비를 하는 경향이 있다는 일관적인 결과를 보였으나, [12]의 연구에서는 경제영역 취약형에 교육수준은 일관성을 보이지 않았고, 노후준비 정도에 학력은 유의

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10]. 이처럼 교육수준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결과가 혼재한다. 다음으로 배우자유무가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4][5][6]의 연구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노후준비를 잘 한다고 하였으며, 기혼자의 경제적 준비수준이 높았다[7]. 그러나 [8]의 연구에서는 배우자 유무가 노후준비에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배우자가 없는 1인가구가 다인가구에 비해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는 응답자 비율이 낮았다[13]. 이와 같이 배우자 유무는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이 다양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거주지역은 1998년 자료에서는 도시지역에 거주할수록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쳤으나 2000년 이후의 자료에서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6]. 또한, 경제활동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임금근로자의 경우 무급가족종사자보다 노후준비 수준이 높았고[10], 직업이 있는 경우가 무직인 경우보다 경제적 노후준비 수준이 높았다[5]. 또한 근로여부가 노후준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14], 경제활동에 참여할수록 노후준비 수준이 높았다[4][15]. 이처럼 대부분의 연구에서 경제활동이 노후준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다음으로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규칙적 운동여부와 질환경험 여부는 노후준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14], [8]의 연구에서도 건강상태는 노후준비에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 그러나 질병이 있는 경우에 오히려 노후준비를 잘 하고 있다[7]는 결과도 있었다. 다음으로 생활만족도가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전반적인 생활여건의 개선은 노후준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6]. 또한 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노후준비를 잘하는 고준비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8]. 이처럼 생활만족도는 노후준비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일관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는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 9차 본조사(2021년) 개인 자료를 사용하였다. 국민연금연구원에서는 인구 고령화로 인하여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고 연금 및 노인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2005년부터 격년으로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대상자는 전국의 만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가구와 해당 가구의 50세 이상인 자와 그 배우자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60세 이상의 고령자 1,923명이며, 수집한 자료는 SPSS 21을 이용하였다. 조사범위는 빈도 분석, 교차분석,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보기 위한 t검정과 ANOVA분석, 변수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고령자의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2. 측정 도구

1) 종속변수: 노후준비

노후준비는 노후생활비 준비여부로 측정하였고, 준비하지 않음을 준거집단으로 설정하였다.

2) 독립변수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성별,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거주지역, 경제활동 상태, 건강상태, 생활만족도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성별은 여성을 준거집단으로 설정하고, 연령은 연속변수를 사용하였으며, 3개의 더미변수를 만들었다. 거주지역은 도를 준거집단으로 설정하고 2개의 더미변수를 만들었다. 배우자 유무는 있음을 준거집단으로 설정하고, 경제활동상태는 취업을 준거집단으로 설정하였다. 건강상태와 생활만족도는 3점 척도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모두 1,923명으로 남성이 952명(49.5%), 여성이 971명(50.5%)이었다. 연령대는 60-64세가 가장 많은 1,135명(59%)이었고 65-69세는 540명(28.1%), 70-74세는 174명(9.0%), 75세 이상은 74명(3.8%)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초졸 이하가 353명(18.4%)이었고, 중졸 이하가 412명(21.4%), 고졸 이하가 875명(45.5%)으로 가장 많았다. 전문대졸 이상은 280명(14.6%)이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1,569명(81.6%)으로 나타났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354명(18.4%)이

었다. 경제활동 상태는 취업자는 1,189(61.8%)이었고, 비취업자는 734명(38.2%)로 나타났다. 건강상태는 좋음이 1,058명(55%), 보통 614명(31.9%), 나쁨 251명(13.1%)이었고, 생활만족도는 만족 985명(51.2%), 보통 891명(46.3%), 불만족 47명(2.4%)로 나타났다.

2.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노후준비 교차분석

표 1과 같이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노후준비와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성별을 분석한 결과, $\chi^2=113.742$, $p=.000$ 으로 나타나 대립가설이 채택되었다. 따라서 성별과 노후준비는 응답 범주간에 연관성이 있었다. 노후준비가 안 되어 있는 여성이 703명(60.3%)으로 가장 많게 나타나 여성의 노후준비가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연령은 $\chi^2=65.836$, $p=.000$ 으로 나타나 대립가설이 채택되었다. 따라서 연령과 노후준비는 응답 범주간에 연관성이 있었다. 노후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는 60-64세가 520명(68.7%)로 가장 많았고, 75세 이상은 13명(1.7%)로 가장 낮았다. 교육수준은 $\chi^2=129.725$, $p=.000$ 으로 나타나 대립가설이 채택되었고 응답 범주간에 연관성이 있었다. 노후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는 60-64세가 520명(68.7%)로 가장 많았고, 75세 이상은 13명(1.7%)로 가장 낮았다. 배우자 유무는 $\chi^2=7.248$, $p=.004$ 으로 나타나 대립가설이 채택되었고 응답 범주간에 연관성이 있었다. 노후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는 고졸 이상이 370명(49.0%)로 가장 많았고, 초졸이하가 75명(9.9%)로 가장 적었다. 배우자 유무는 $\chi^2=7.248$, $p=.004$ 으로 나타나 대립가설이 채택되었다. 따라서 응답 범주간에 연관성이 있었다. 노후준비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640명(84.5%)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117명(15.5%)으로 적었다. 거주지역은 $\chi^2=5.044$, $p=.080$ 으로 나타나 귀무가설이 채택되어 응답 범주간에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경제활동 상태는 $\chi^2=26.862$, $p=.000$ 으로 나타나 대립가설이 채택되었고, 응답 범주간에 연관성이 있었다. 노후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는 취업자가 522명(69.0%)으로 가장 많았고, 노후준비가 되어 있는 비취업자는 235명(31.0%)에 불과했다. 건강상태는 $\chi^2=33.806$, $p=.000$ 으로 나타나 귀무가설이 기각되고 대립가설이 채택되었고, 응답 범주간에 연관성이 있었다. 노후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는 취업자가 522명(69.0%)으로 가장 많았고, 노후준비가 되어 있는 비취업자는 235명(31.0%)에 불과했다. 건강상태는 $\chi^2=33.806$, $p=.000$ 으로 나타나 귀무가설이 기각되고 대립가설이 채택되었고, 응답 범주간에 연관성이 있었다. 노후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는 건강상태가 좋음이 474명(62.6%)로 가장 많았고 건강상태가 나쁨은 68명(9.0%)로 나타났다. 생활만족도는 $\chi^2=119.146$, $p=.000$ 으로 나타나 대립가설이 채택되었다. 따라서 응답 범주간에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노후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는 생활만족도가 좋음이

표 1.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노후준비 교차분석

Table 1. Cross-analysis of retirement preparation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survey subjects

변수		안함	함	$\chi^2(p)$	
성별	남	463	489	113.742***	
		39.7%	64.6%		
여	703	268	268		
		60.3%	35.4%		
연령	60-64세	615	520		65.836***
		52.7%	68.7%		
	65-69세	351	189		
		30.1%	25.0%		
	70-74세	139	35		
11.9%		4.6%			
75세 ↑	61	13			
교육수준	초졸이하	278	75	129.725***	
		23.9%	9.9%		
	중졸	280	132		
		24.0%	17.5%		
	고졸	505	370		
43.3%		49.0%			
전문대졸 ↑	102	178			
배우자 유무	없음	237	117	7.248**	
		20.3%	15.5%		
있음	929	640	640		
		79.7%	84.5%		
거주지역	서울	169	138	5.044	
		14.5%	18.2%		
	광역시	320	191		
		27.4%	25.2%		
도	677	428			
	58.1%	56.5%			
경제활동 상태	비취업	499	235	26.862***	
		42.8%	31.0%		
	취업	667	522		
건강 상태	나쁨	183	68	33.806***	
		15.7%	9.0%		
	보통	399	215		
		34.2%	28.4%		
좋음	584	474			
	50.1%	62.6%			
생활만족도	불만족	43	4	119.146***	
		3.7%	.5%		
	보통	639	252		
		54.8%	33.3%		
만족	484	501			
	41.5%	66.2%			

* $p<.05$, ** $p<.01$, *** $p<.001$

501명(66.2%)으로 많았다. 노후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경우는 생활만족도를 보통으로 응답한 경우가 639명(54.8%)으로 나타났다.

3. t검정 및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

표 2와 같이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노후준비 점수 간에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별은 $t=10.977$, $p=.000$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귀무가설이 기각되고 대립가설이 채택되었다. 남성이 노후준비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라 노후준비의 차이가 있었다. 배우자 유무는 $t=-2.770$, $p=.006$ 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대립가설이 채택되었다. 따라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노후준비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배우자 유무에 따라 노후준비 여부는 차이가 있었다. 다음으로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노후준비 점수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t=-5.293$, $p=.000$ 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비취업자보다 취업자가 노후준비를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나 대립가설이 채택되었다.

표 2.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노후준비 점수 차이(t 검정)
 Table 2. Differences in retirement preparation scores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survey subjects(t analysis)

변수	노후준비			t(p)	
	N	M	SD		
성별	남	952	.5137	.50008	10.977 (.000)***
	여	971	.2760	.44725	
배우자	없음	354	.3305	.47106	-2.770 (.006)**
	있음	1569	.4079	.49160	
경제활동 상태	비취업	734	.3202	.46686	-5.293 (.000)***
	취업	1189	.4330	.49648	

* $p<.05$, ** $p<.01$, *** $p<.001$

표 3과 같이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보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령에 따른 노후준비 여부의 평균차이는 $F=22.676$, $p=.000$ 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귀무가설이 기각, 대립가설이 채택되어 적어도 두 집단 간에는 노후준비 여부의 점수 평균이 차이가 있었다. 교육수준에 따른 노후준비 여부의 평균 차이는 $F=46.278$, $p=.000$ 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대립가설이 채택되어 적어도 두 집단 간에는 노후준비 여부의 점수 평균이 차이가 있었다. 거주지역 간에 노후준비 여부의 차이는 $F=2.525$, $p=.080$ 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귀무가설이 채택되어 집단 간에는 노후준비 여부의 점수 평균이 차이가 없었다. 건강상태에 따라 노후준비 여

부의 평균 차이는 $F=17.178$, $p=.000$ 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대립가설이 채택되어 적어도 두 집단 간에는 노후준비 여부의 점수 평균이 차이가 있었다. 생활만족도 간에 노후준비 여부의 평균 차이는 $F=63.409$, $p=.000$ 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귀무가설이 기각되고, 대립가설이 채택되어 적어도 두 집단 간에는 노후준비 여부의 점수 평균이 차이가 있었다.

표 3.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노후준비 점수 차이(ANOVA)
 Table 3. Differences in retirement preparation scores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survey subjects(ANOVA)

변수	노후준비				
	N	M	SD	F	p
연령	60-64세	1135	.4581	.49847	22.676 .000 ***
	65-69세	540	.3500	.47741	
	70-74세	174	.2011	.40202	
	74세 ↑	74	.1757	.38314	
교육수준	초졸 ↓	353	.2125	.40963	46.278 .000 ***
	중졸	412	.3204	.46719	
	고졸	875	.4229	.49430	
	대졸 ↑	280	.6357	.48209	
거주지역	서울시	307	.4495	.49826	2.525 .080
	광역시	511	.3738	.48428	
	도	1105	.3873	.48736	
건강상태	나쁨	251	.2709	.44532	17.178 .000
	보통	614	.3502	.47741	
	좋음	1058	.4480	.49753	
생활만족도	나쁨	47	.0851	.28206	63.409 .000
	보통	891	.2828	.45063	
	좋음	985	.5086	.50018	

* $p<.05$, ** $p<.01$, *** $p<.001$

4.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

표 4와 같이 변수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건강상태와 생활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는 $r=0.323$, $p=0.000$ 으로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거주지역-서울과 건강상태는 $r=0.048$, $p=0.034$ 로 가장 낮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교육-고졸과 교육-중졸은 $r=-0.478$, $p=0.000$ 으로 상관관계 중 가장 높은 부(-)적 관계를 나타냈고, 교육고졸과 배우자유무는 $r=-0.045$, $p=0.048$ 로 가장 낮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4.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

Table 4. Correlation between key variables

	성별	연령	교육 초졸	교육 중졸	교육 고졸	배우자 유무	거주 서울	거주 광역시	경제 활동	건강 상태	생활 만족도	노후 준비
성별	1											
연령	.041	1										
교육 초졸	.188***	.306***	1									
교육 중졸	.119***	.081***	-.248***	1								
교육 고졸	-.120***	-.222***	-.434***	-.478***	1							
배우자 유무	.170***	.073**	.136***	.001	-.048*	1						
거주 서울	.000	-.018	-.068**	-.048*	-.025	-.013	1					
거주 광역시	.019	-.035	-.066**	.002	.056*	.027	-.262***	1				
경제 활동	.301***	.171***	-.010	.023	-.015	.002	-.003	.070**	1			
건강 상태	-.094***	-.124***	-.131***	-.091***	.091***	-.096***	.048*	.041	-.206***	1		
생활 만족도	-.070**	-.152*8*	-.11*5**	-.069**	.080***	-.183***	.016	.034	-.084***	.323***	1	
노후 준비	-.243***	-.179***	-.176***	-.078**	.056*	-.061**	.050*	-.024	-.118***	.132***	.249***	1

p* < 0.1, p** < 0.05, p*** < 0.01

5. 노후준비 영향 요인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방법은 입력을 선택하였다. 분석결과 $F=32.023(p<.000)$ 으로 본 회귀모형에 적합하였다. $adj. R^2=0.151$ 로 15.1%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성별은 $\beta = -.183(p<.000)$ 으로 귀무가설이 기각되고 대립가설이 채택되어 성별은 노후준비 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보다 남성의 노후준비 여부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beta = -.099(p<.000)$ 으로 귀무가설이 기각되고 대립가설이 채택되어 연령도 노후준비 여부에 유의한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적을수록 노후준비 여부의 점수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교육수준-초졸은 $\beta = -.210(p<.000)$ 으로 귀무가설이 기각되고 대립가설이 채택되어 교육수준-초졸도 노후준비 여부에 유의한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문대졸 이상 졸업자에 비해 초졸자의 노후준비 여부의 점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중졸은 $\beta = -.168(p<.000)$ 로 귀무가설이 기각되고 대립가설이 채택되어 교육수준-중졸도 노후준비 여부에 유의한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에 비해 중졸자의 노후준비 여부의 점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고졸도 $\beta = -.173(p<.000)$ 으로 귀무가설이 기각되고 대립가설이 채택되어 교육수준-고졸도 노후준비 여부에 유의한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문대학이상 졸업자에 비해 고졸자의 노후준비 여부의 점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만족도는 $\beta = .201(p<.000)$ 로 귀무가설이 기각되고 대립가설이 채택되어 노후준비 여부에 유의한 정적(+)영향을 미쳤다. 즉, 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노후준비 여부의 점수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배우자 유무($\beta = .034$), 거주지역-서울($\beta = .010$), 거주지역-광역시($\beta = .000$)와 건강상태($\beta = .334$)는 유의확률(p)이 .5보다 크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대립가설이 기각되고 귀무가설이 채택되었다.

표 5. 노후준비 영향 요인

Table 5. Factors affecting retirement preparation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p)	TOL	VIF
	B	SE	β			
(Constant)	.940	.184		5.107		
성별_남성	-.179	.023	-.183	-7.788***	.803	1.245
연령	-.011	.003	-.099	-4.295***	.830	1.204
교육더미_초졸	-.265	.040	-.210	-6.600***	.436	2.292
교육더미_중졸	-.199	.037	-.168	-5.406***	.461	2.171
교육더미_고졸	-.170	.032	-.173	-5.391***	.428	2.339
배우자더미_없음	.043	.028	.034	1.576	.926	1.080
거주더미_서울	.013	.030	.010	.444	.897	1.115
거주더미_광역시	-.036	.024	-.033	-1.485	.912	1.096
경제더미_비취업	-.027	.023	-.027	-1.174	.820	1.220
건강상태	.005	.016	.008	.334	.837	1.195
생활만족도	.180	.020	.201	8.848***	.857	1.167
F(p)	32.023(***)					
adj. R^2	.151					
p* < 0.1, p** < 0.05, p*** < 0.01 Reference group: 성별-여성, 교육수준-전문대졸이상, 배우자-있음, 거주지역-도, 경제활동상태-취업, 노후준비-하지 않음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국민노후보장패널 9차 본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전국의 60세 이상의 고령자 1,923명을 대상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먼저, 대상자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하였고, 집단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정과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또한 변수들간의 영향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노후준비에 15.1%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이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여성에 비해 남성이 노후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남성의 노후준비 수준이 높다는 [4][7]의 결과와는 일치하며, 여성이 노후준비를 잘 하고 있다는 [5][9][8]의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다음으로 연령은 노후준비에 부정(-) 영향을 미쳐서 연령이 어릴수록 노후준비가 많이 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11]의 연구와 일치한다. 그러나 나이가 많을수록 노후준비를 잘 한다는 [5][4][8][10]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다음으로 교육수준이 노후준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전문대

졸 이상의 대상자보다 초졸, 중졸, 고졸 대상자는 노후준비를 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노후준비를 하고 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이유는 교육수준과 경제상태는 관련이 많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결과는 [6]의 연구와 같으며, 일관성이 없다는 [10]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다음으로 생활만족도가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노후준비를 잘 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6][8]의 연구와 일치한다. 일반적으로 노후준비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식하였으나 본 연구를 통하여 현재의 생활만족도가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들의 노후준비에 관한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여성의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더 길기 때문에 여성의 부족한 노후준비는 노인빈곤과 연결이 된다. 그리고 여성들의 노후준비가 안 되어 있는 이유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경제활동 참여와 임금에서의 성차별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해 일가정양립정책이 확대되어야 하며 임금차별도 감소되어야 한다. 또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노후준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령이 많은 집단에 대해 실질적 노후준비 상태를 진단하고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는 공적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고령자일수록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아웃리치 서비스가 필요하다. 또한 고령자 적합 일자리를 개발하여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교육수준이 낮은 고령자들은 노인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노후준비에 대한 상담과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주민센터와 지역의 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넷째, 현 상태에 대한 만족감은 생활 전반과 노후준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와 다르게 생활만족도가 노후준비의 영향요인임을 확인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추후 연구가 요구된다.

References

- [1] kostat.go.kr
- [2] Y. K. Son and S-M Chol, The Effects of Preparation for Later Life on Life Satisfaction after Retirement : Focused on Gender Difference, *Social Work Practice Research*, Vol. 17 no. 2, pp. 5~40, 2020. Doi.org/10.38082/SWPR.2020.17.02.5
- [3] M. J. Bae & K. Y. Jeon, The Effect of Variables on Attitudes and Preparations toward Retirement, *Human Ecology Research*, Vol. 42, No.7, pp. 89-102, 2004.
- [4] J. K. Kim & E. J. Park, The Effects of Recognition of Retirement Responsibility on Financial Retirement Preparedness: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s of Income-level,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 40, No. 4, pp. 639-657, 2020. https://doi.org/10.31888/JKGS.2020.40.4.639
- [5] Y. E Kim, C. W. Lee, "A study on preparation level for old age of the middle-aged",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Research*, Vol. 19, pp. 55-82, 2008.
- [6] C. J. Park, Preparation Trend for Aging of the Elders over Time and Their determinants by 1998, 2002, 2009, 2015 years in Korea, *Social Welfare Policy*, Vol. 44, No. 3, pp. 163-188, 2017.
- [7] O. J. Lee, A Study on the Retirement and Old-Age Preparedness of Optometrists, *J Korean Ophthalmic*, Vol. 23, No. 4, pp.309-316, December 2018, 309-316, 2018. http://dx.doi.org/10.14479/jkoos.2018.23.4.309
- [8] G. S. Lee & M. J. Kwon, A Study on the Retirement Preparation types and Predictors of Baby Boomers by Using Profile Analysis: Focusing on Personal and Economic Characteristics, *GRI REVIEW*, Vol. 21, No. 4, pp. 33-62, 2019.
- [9] Ahn Na Lim, A Study on the preparation for retirement life of retired woman, *IICCC* 2021, p. 205.
- [10]K. W. Cho & S. H. Hong, An Analysis on Factors Affecting the Retirement Readiness and the Capability of Local Middle-Aged Women,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 24, No.3, pp. 419-435, 2019. https://doi.org/10.13049/kfwa.2019.24.3.8
- [11]K.H, Effect of Local Government Senior Support Policy on Preparation for Later Life: Verification of Mediating Effect of Recognition of Senior Citizen Problem, *Culture and Convergence*, Vol. 44, No. 3. pp. 799-820. 2022. DOI:https://doi.org/10.33645/cnc.2022.03.44.3.799
- [12]B. R. Lee & J. H. Lee, Cluster Analysis of the Different Types and Degree of Preparation for Old-age Among Middle-aged Rural Residents in South Korea,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 43, No. 5, 781-799, 2023. https://doi.org/10.31888/JKGS.2023.43.5.781
- [13]H. Y. Sung, The Social Relations and Economic Preparation for Retirement of One-Person Household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 26, No.1, pp. 61-79 2021. https://doi.org/10.13049/kfwa.2021.26.1.4
- [14]D. K. Kim, & I. S. Hwang, A Study on the Factors that affect Preparations for Old Age among Middle-aged and Older Adults with Severe Disabilities, *Journal of Public Policy*, Vol. 37, No. 1, pp. 87-112, 2020. https://doi.org/10.33471/ILA.37.1.4
- [15]S. J. Kim, E. H. Jang & S. H. Hong,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on the Preparation for Aging of Korean Baby Boomers, *Korean Social Security Studies*, Vol. 38, No. 3, pp. 239-270, 2022.
- [16]A. N. Lim & Y. S., Park, The Effect of Family Care Providers' Capital on Life Satisfaction-centered on grandparents caring for grand children,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JCCT)*, Vol. 10, No.1, pp. 97-103, 2024. http://dx.doi.org/10.17703/JCCT.202

4.10.1.97

- [17]H. J. Lee & H. J. Nam, Correlates of the Use of Digital Devices, Social Support, and Successful Aging Among the Elderly,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JCCT), Vol. 10, No. 3, pp. 405-411, 2024. <http://dx.doi.org/10.17703/JCCT.2024.10.3.405>

※ 이 논문은 2023년도 광운대학교 교내학술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